



사랑의 경주를 해요



포콜라레
천주교마리아사업회

형제어로 서로 깊이 아끼고, 서로 존경하는 일에 먼저 나서십시오.
(로마서 12장 10절)



사도 바오로는 초기 그리스도인 공동체에 보낸 편지에서, 항상 모두가 서로 사랑하고, 그들 사이에 사랑의 경주를 하도록 격려해 주셨어요.



예수님의 어머니이신 마리아께서도 천사로부터 아이를 잉태하게 되리라는 말을 들었을 때, 그렇게 하셨어요. 마리아는 자기 자신을 생각하지 않고, 사촌 언니 엘리사벳을 생각했어요.



이미 나이가 많은 그 언니도 아기를 가진 상태였어요. 성모님께서서는 엘리사벳을 도우러 찾아가세요. 이를 통해 성모님께서서는 우리에게 먼저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 주세요!



브라질에 사는 베아트리카가 이야기해요

“우리는 형제가 많은데, 부모님께서서는 자주 도움을 청하세요. 하루는 아버지께서 물 한 잔 가져다 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때 우리는 모두들 뭔가를 하고 있는 중이었어요. 나도 숙제를 하고 있었는데, 얼른 끝내고 놀고 싶어서 방해받고 싶지 않았어요.



그러나, 곧바로 도움을 청하신 아버지를 생각하며 즉시 일어나서 아주 기쁘게 물을 가져다 드렸어요.